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 정 인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발견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시기로 대학 입학 후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한다(이숙정, 유지현, 2008). 성인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사회적,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세계화 사회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다(강승희, 김대현, 2006).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대학교육은 국가, 사회, 경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 등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전문 직업인을 배양해야 하며(김연수, 2003),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학생의 창의력을 신장하고 사고력을 길러주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전문 직업인의 필수 능력으로서 비판적 사고가 강조되고 있다(윤소정, 신수진, 이은영, 2007).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치를 명료화하고 야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주요 변인이 된다(오혜경, 2003).

비판적 사고는 평가와 판단을 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서 특히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

로 비판적 사고를 중히 여기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 성향(Facione & Facione, 1994), 혹은 지적 열정과 지적인 정직함, 신중함, 객관성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 및 기질로 정의된다(권인수 등, 2006).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며(Rosenberg, 1965),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97). 즉, 비판적 사고는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비판적 사고 교육은 진로 교육에 있어서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도구적 역할을 하게 된다(윤소정, 신수진, 이은영, 2007).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신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므로(이숙정, 유지현, 2008), 비판적 사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이다.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임상간호현장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상황에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정보의 적용, 분석, 종합, 추론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여야 하는 것이 간호교육계의 도전 과제임을 감안할 때(권인수 등, 2006),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타 전공 학생들과 그 정도를 비교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주요어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1) 혜천대학 간호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jilee@hu.ac.kr)

투고일: 2009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2009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14일

그동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사고 성향 연구(Ozturk, Muslu, & Dicle, 2008; Shin, Lee, Ha, & Kim, 2006; Stewart & Dempsey, 2005; 양승애, 정덕유, 2004; 조학순, 2007)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연구(황성자, 2006),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연구(오혜경, 2003)는 있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따른 비판적사고 성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 성향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및 대학생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을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사고 성향의 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용어 정의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Rosenberg, 1965), 태도, 능력, 직업의 성공, 실패, 신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인적 기대 등을 포함한다(Cook, 1976).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 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계획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서(Bandura, 1997), 본 연구에서는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한 도구를 최혜숙(2006)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비판적사고 성향

비판적사고 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진실추구, 개방성, 분석, 체계성, 자신감, 호기심, 성숙 등을 포함한다(Facione, & Facione, 1994). 본 연구에서는 Facione과 Facione(1994)이 개발한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CCTDI)를 황지원(199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판적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D시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86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방법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치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으며 서면으로 참여 동의를 구한 뒤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 크기는 무한 모집단의 경우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노형진, 정한열, 2008)에 따라 요구정밀도 $e=0.1$, 모집단 비율 $p=0.5$, 신뢰수준 $a=0.95$ (신뢰계수 $k=1.96$)로 계산하였을 때 96명이었으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연구인 경우에 보다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는(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8) 문헌에 근거하여 486명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 및 회수하여 자료 활용이 부적절한 14부를 제외한 총 48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개발 당시에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 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Sherer와 Maddux(1982)의 도구를 최혜숙(2006)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일의 시작,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의지, 성취, 확신에 관한 문항의 총 12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최혜숙(2006)의 연구에서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비판적사고 성향

비판적사고 성향은 Facione과 Facione(1994)의 도구 CCTDI를 황지원(199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진실추구, 개방성, 분석, 체계성, 자신감, 호기심, 성숙의 7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총 50문항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황지원(1998)의 연구에서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PC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은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비판적사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19-20세가 263명(54.1%), 여성이

412명(84.4%), 대학은 전문대학 재학생이 305명(62.8%), 4년제 대학생이 141명(29.0%)로 조사되었고, 학년은 1학년 161명(33.1%), 2학년 159명(32.7%), 3학년 93명(19.1%), 4학년 33명(6.8%), 전공심화과정 40명(8.2%)로 나타났다. 전공은 간호과 326명(67.1%), 인문사회계열 97명(20.0%),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40명(8.2%), 예체능계 23명(4.7%)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172명(35.4%), 이전에 수강한 과목이 논리학 및 철학은 67명(13.8%), 비판적사고는 149명(30.7%)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86)

Variables	Categories	n	%
Age(yr)	19-20	263	54.1
	21-25	137	28.2
	26-29	55	11.3
	over 30	31	6.4
Gender	Male	74	15.2
	Female	412	84.8
Education	University	141	29.0
	College	305	62.8
	Bachelor degree course	40	8.2
Grade	Freshman	161	33.1
	Sophomore	159	32.7
	Junior	93	19.1
	Senior	33	6.8
	Bachelor degree course	40	8.2
Major	Nursing	326	67.1
	Cultural social science	97	20.0
	Natural science, technology	40	8.2
	Art, Athletics	23	4.7
Religion	Protestant	172	35.4
	Catholic	50	10.3
	Buddhist	48	9.9
	Others	216	44.4
Completion subject	Philosophy, Logic	67	13.8
	Critical thinking	149	30.7
	None	270	55.6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 정도

<Table 2> Mean scores of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486)

Classification		Mean $\pm$ SD	Observed range	Original range
Self esteem		2.99 $\pm$ 0.42	1.90-4.00	1.00-4.00
Self efficacy		2.80 $\pm$ 0.39	1.75-4.00	1.00-4.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ruth-seeking	3.89 $\pm$ 0.49	2.63-5.63	1.00-6.00
	Open mindedness	3.72 $\pm$ 0.61	2.00-6.00	1.00-6.00
	Analyticity	3.60 $\pm$ 0.55	1.80-5.60	1.00-6.00
	Systemicity	3.71 $\pm$ 0.55	1.86-5.71	1.00-6.00
	Self-confidence	3.88 $\pm$ 0.58	2.22-5.89	1.00-6.00
	Inquisitiveness	4.45 $\pm$ 0.51	3.20-5.90	1.00-6.00
	Maturity	4.22 $\pm$ 0.61	2.33-6.00	1.00-6.00
	Total	3.99 $\pm$ 0.37	2.92-5.46	1.00-6.00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2.99점(4점 만점), 자기효능감 평균은 2.80점(4점 만점), 비판적사고 성향 총합의 평균은 3.99점(6점 만점), 진실추구 평균은 3.89점(6점 만점), 개방성 평균은 3.72점(6점 만점), 분석력 평균은 3.60점(6점 만점), 체계성 평균은 3.71점(6점 만점), 자신감 평균은 3.88점(6점 만점), 호기심 평균은 4.45점(6점 만점), 성숙 평균은 4.22점(6점 만점)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3.982, p=.008$), 자기효능감 또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조사되었다($F=8.672, p=.000$). 비판적 사고 성향 총합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F=12.666, p=.000$), 학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F=4.915, p=.008$), 학년은 학사학위 과정($F=3.917, p=.004$)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영역 별로 진실추구는 연령이 많은 경우($F=4.010, p=.008$)와 학년은 2학년

($F=2.934, p=.020$)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개방성은 전공이 예체능, 간호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F=3.280, p=.021$). 분석력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F=10.655, p=.000$), 남성인 경우($t=2.450, p=.015$), 대학은 학사학위 과정($F=4.330, p=.014$), 학년은 학사학위 과정인 경우($F=4.501, p=.001$)에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체계성은 30세 이상인 경우($F=7.962, p=.000$), 학년이 전공심화과정인 경우($F=2.606, p=.035$)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신감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F=6.875, p=.000$), 남성인 경우($t=2.613, p=.009$), 대학이 학사학위 과정인 경우($F=4.723, p=.009$), 학년은 학사학위 과정($F=3.476, p=.008$), 이전 수강과목은 철학 및 논리학, 비판적 사고, 이상의 과목 수강 경험 없음 순으로($F=4.18, p=.016$) 높게 조사되었으며, 호기심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F=12.324, p=.000$), 대학이 학사학위 과정인 경우($F=5.117, p=.006$), 학년은 학사학위 과정일 때($F=2.552, p=.038$)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성숙은 대학이 학사학위 과정인 경우($F=4.839, p=.008$), 전공이 간호학인 경우($F=2.780, p=.041$),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F=4.102, p=.007$)에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조사되었다<Table 3>.

<Table 3> The self esteem, self 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486)

Variables	Categories	Self esteem		Self efficacy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Age(yr)	19-20	2.95±0.40(a)		2.73±0.38(a)	
	21-25	3.01±0.46(b)	3.982(.008)	2.86±0.40(b)	8.672(<.001)
	26-29	3.05±0.41(c)	a<d	2.86±0.39(c)	a<b,d
	Over 30	3.20±0.36(d)		3.04±0.39(d)	
Gender	Male	2.99±0.49	-.161(.872)	2.91±0.44	2.682(.008)
	Female	2.99±0.41		2.78±0.38	
Education	University	2.96±0.46	.975(.378)	2.78±0.41	.995(.371)
	College	2.99±0.41		2.80±0.40	
	Bachelor degree course	3.07±0.32		2.88±0.36	
Grade	Freshman	2.94±0.41	1.325(.259)	2.76±0.39	1.402(.232)
	Sophomore	3.01±0.44		2.78±0.42	
	Junior	2.99±0.45		2.81±0.38	
	Senior	3.08±0.43		2.89±0.41	
	Bachelor degree course	3.06±0.31		2.90±0.36	
Major	Nursing	3.01±0.41	1.130(.336)	2.81±0.40	1.033(.378)
	Cultural social science	2.95±0.41		2.74±0.40	
	Natural science, technology	2.92±0.56		2.84±0.40	
	Art, Athletics	3.05±0.39		2.77±0.38	
Religion	Protestant	3.05±0.42	1.541(.203)	2.81±0.39	.157(.925)
	Catholic	2.93±0.39		2.78±0.34	
	Buddhist	2.96±0.40		2.79±0.43	
	Others	2.97±0.42		2.79±0.43	
Completion subject	Philosophy, logic	2.97±0.44	.717(.489)	2.75±0.36	.575(.563)
	Critical thinking	3.03±0.41		2.81±0.43	
	None	2.98±0.42		2.81±0.39	

<Table 3> The self esteem, self 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486)

Variable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ruth-seeking		Open mindedness		Analyticity		Systemicity		Self-confidence		Inquisitiveness		Maturity		Total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Age(yr)	19-20 ^a	3.84±0.47		3.69±0.61		3.5±10.54		3.64±0.53		3.80±0.59		4.34±0.49		4.18±0.65		3.93±0.36	
	21-25 ^b	3.92±0.51	4.010 (.008)	3.75±0.62	1.683	3.61±0.53	10.655 (<.001)	3.70±0.58	7.962 (<.001)	3.92±0.52	6.875 (<.001)	4.53±0.51	12.324 (<.001)	4.21±0.56	2.120 (.097)	4.03±0.35	12.666 (<.001)
	26-29 ^c	3.94±0.53	d>a	3.65±0.59	(.170)	3.76±0.52	d>a,b,c	3.84±0.46	d>a,b	3.95±0.59	d>a,b	4.51±0.52	d>a,b,c	4.24±0.59		4.05±0.36	d>a,b,c
	over 30 ^d	4.14±0.49		3.92±0.55		4.03±0.54		4.11±0.59		4.26±0.57		4.85±0.40		4.47±0.50		4.33±0.32	
Gender	Male	3.98±0.61	1.705	3.72±0.59	-.007	3.74±0.58	2.450	3.80±0.47	1.596	4.03±0.62	2.613	4.47±0.55	.539	4.21±0.64	-.001	4.07±0.39	1.875
	Female	3.88±0.47	(.089)	3.72±0.61	(.995)	3.57±0.54	(.015)	3.69±0.57	(.111)	3.85±0.57	(.009)	4.44±0.51	(.590)	4.21±0.61	(.991)	3.99±0.37	(.061)
Education	University ^a	3.88±0.52		3.66±0.56		3.62±0.54	4.330	3.69±0.52	2.261	4.00±0.52	4.723	4.38±0.51	5.117	4.13±0.59	4.839	3.98±0.36	4.915
	College ^b	3.73±0.63	.653 (.521)	3.73±0.63	1.881 (.154)	3.56±0.55	(.014)	3.70±0.57	(.105)	3.82±0.60	(.009)	4.45±0.52	(.006)	4.22±0.62	(.008)	3.99±0.38	(.008)
	Bachelor degree course ^c	3.98±0.49		3.86±0.54		3.84±0.52	c>b	3.89±0.51		4.10±0.52	c>b	4.67±0.44	c>a,b	4.47±0.56	c>a	4.18±0.32	c>a,b
Grade	Freshman ^a	3.80±0.48		3.65±0.58		3.49±0.55		3.62±0.56		3.75±0.63		4.40±0.54		4.16±0.63		3.93±0.38	
	Sophomore ^b	3.98±0.50	2.934	3.75±0.67		3.61±0.52	4.501	3.73±0.55	2.606	3.94±0.58	3.476	4.42±0.52	2.552	4.21±0.66		4.03±0.37	3.917
	Junior ^c	3.87±0.47	(.020)	3.73±0.56	1.031 (.390)	3.60±0.55	(.001)	3.70±0.53	(.035)	3.88±0.47	(.008)	4.51±0.44	(.038)	4.23±0.57	1.889 (.111)	4.01±0.33	(.004)
	Senior ^d	3.86±0.59	b>a	3.72±0.56		3.80±0.63	e>a	3.82±0.60	e>a	3.96±0.56	e>a,b	4.35±0.55	e>a,b	4.16±0.46		4.01±0.42	e>a
	Bachelor degree course ^c	3.97±0.41		3.84±0.54		3.85±0.51		3.90±0.49		4.05±0.51		4.64±0.44		4.45±0.56		4.17±0.32	
Major	Nursing ^a	3.90±0.49		3.76±0.62		3.60±0.56		3.71±0.57		3.85±0.59		4.49±0.52		4.26±0.59		4.02±0.38	
	Cultural social science ^b	3.83±0.45	.692	3.60±0.55	3.280 (.021)	3.56±0.50	1.549	3.65±0.54	1.239	3.91±0.51	1.489	4.34±0.49	2.231	4.01±0.64	2.780 (.041)	3.93±0.33	1.279
	Natural science, technology ^c	3.95±0.63	(.557)	3.56±0.54	c>b	3.75±0.62	(.201)	3.68±0.51	(.295)	4.03±0.56	(.217)	4.39±0.54	(.084)	4.16±0.62	a>b	4.01±0.39	(.281)
	Art, athletics ^d	3.90±0.52		3.89±0.68		3.48±0.47		3.90±0.42		3.91±0.69		4.43±0.44		4.22±0.60		4.02±0.38	
Religion	Protestant ^a	4.00±0.50		3.76±0.68		3.63±0.49		3.74±0.55		3.90±0.57		4.52±0.55		4.34±0.63		4.06±0.39	
	Catholic ^b	3.83±0.40	4.720 (.003)	3.76±0.54	.791	3.63±0.56	.409	3.69±0.50	1.352	3.96±0.50	.762	4.42±0.52	1.643	4.21±0.55	4.102 (.007)	4.00±0.31	2.462
	Buddhist ^c	3.79±0.42	a>c	3.75±0.62	(.500)	3.58±0.65	(.747)	3.56±0.53	(.257)	3.83±0.61	(.516)	4.42±0.50	(.179)	4.07±0.59	a>c,d	3.93±0.32	(.062)
	Others ^d	3.84±0.51		3.67±0.56		3.57±0.57		3.72±0.57		3.84±0.59		4.40±0.48		4.14±0.60		3.97±0.38	
Completion subject	Philosophy, logic ^a	3.90±0.46		3.65±0.57		3.62±0.58		3.73±0.56		4.05±0.52	4.182	4.38±0.52		4.26±0.61		4.02±0.36	
	Critical thinking ^b	3.96±0.50	2.656 (.071)	3.77±0.67	1.085 (.339)	3.64±0.54	.879 (.416)	3.74±0.58	.431 (.650)	4.00±0.57	(.016)	4.50±0.53	1.422 (.242)	4.24±0.62	.583 (.559)	4.04±0.38	1.698 (.184)
	None ^c	3.84±0.49		3.71±0.58		3.57±0.55		3.68±0.53		3.82±0.59	a>c	4.43±0.50		4.18±0.61		3.97±0.37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경우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가 높고($r = .513, p = .000$),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경우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630, p = .000$),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 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 = .570, p = .000$)<Table 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비판적 사고 성향($\beta = .225, p = .000$)의 26.2%, 자기효능감($\beta = .484, p = .000$)은 39.7%를 설명하였고, 두 요인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44.6%를 설명하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9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황성자(2006)의 연구, Suliman과 Halabi(2007)의 연구결과보다 낮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오혜경(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므로(Rosenberg, 1965), 가치를 명료화하고 구체적인 인생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인 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4점 만점에 2.80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성자(2006)의 연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오혜경(2003)의 연구 결과 비슷한 정도로 조사되었다.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자

기효능감(Bandura, 1997)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판단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으며(권성연, 2007), 세계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변인 중의 하나이다. 비판적 사고 성향 총합의 평균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liman과 Halabi(2007) 연구, 양승애와 정덕유(2004)의 연구보다 약간 높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진이(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중간대상으로 점수로 조사되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부 영역은 호기심, 성숙, 진실추구, 자신감, 개방성, 체계성, 분석력 순으로 호기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승애와 정덕유(2004)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진이(2007)의 연구에서도 호기심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이 기반이 되는 개방적 학습사회에서 그리고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해 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대학생 및 청년층의 입장(강승희, 김대현, 2006)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liman과 Halabi(2007) 연구에서는 분석력, 개방성, 체계성, 호기심, 진실추구, 자신감, 성숙 순으로 점수가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다르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전공 및 문화 등에 따른 차이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자기효능감 역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급 학년이 되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황성자(2006)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성숙되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되어(오혜경, 2003)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predictable variables of subjects (N=48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p)	Self esteem r(p)	Self efficacy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000		
Self esteem	.513 ($<.001$)	1.000	
Self efficacy	.630 ($<.001$)	.570 ($<.001$)	1.000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486)

Predictor Variables	B	β	R ²	t	p
Self esteem	.198	.225	.262	5.392	$<.001$
Self efficacy	.453	.484	.397	11.348	$<.001$
F			47.90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총합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전공심화 학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학년은 전공심화 학사학위 과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비판적사고 성향의 하위영역에서 분석력, 체계성, 자신감, 호기심 영역이 30세 이상인 경우와 전공심화 학사학위 과정인 경우에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조사되었다. 진실추구 영역은 나이가 많은 경우에, 성숙 영역은 전공심화 학사학위 과정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승애와 정덕유(2004)의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3년제보다 4년제의 경우에 또 RN-BSN 과정의 대상자인 경우 비판적사고 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며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판적사고 성향의 점수가 높다고 한 Shin, Lee, Ha 및 Kim(2006)의 연구 및 Stewart와 Dempsey(2005)의 연구 결과와 같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숙해지고 도덕성이 발달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아짐으로써 비판적사고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는 이론(Martin, 2002; 신경림 등, 2007)을 뒷받침한다.

성별에 따른 비판적사고 성향에서 분석력과 자신감 영역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조사되었다. Walsh와 Hardy(1999)의 연구결과는 남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으나, 강승희와 김대현(2006)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전공에 따른 비판적사고 성향에서 개방성은 예체능, 간호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순으로 성숙은 간호학, 인문사회, 예체능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alsh와 Hardy(1999)의 연구에서 전공별로 비판적사고 성향을 조사한 결과 간호학, 영어, 심리학 전공 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세계가 다양화, 전문화 되어 가는 현 시대에서 대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이 중요하고, 비판적 사고가 직업적 능력 중 하나로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간호교육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총체적으로 간호하기 위하여 창의적이며 상황응용에 빠르게 적용하는 비판적사고 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암기식 교육과 틀에 맞는 정답을 찾는 교육이 지속되고 있어(신경림, 하주영, 김건희, 2005) 이에 대한 간호교육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행되어온 대학생의 비판적사고 관련 연구는 간호학 생이나(권인수 등, 2006; 신경림, 하주영, 김건희, 2005; 양승애, 정덕유, 2004) 일반대학생(강승희, 김대현, 2006; 윤소정, 신수진, 이은영, 2004)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전공에 따른 비판적사고 정도를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에는 전공별, 성별, 학점별 등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적사고 관련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전 수강과목으로 철학, 논리학, 비판적사고 관련 과목을 조사한 것은 선행연구(양승애, 정덕유, 2004)를 통해 이들 과목이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폭넓게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조사결과 논리학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의 수가 적어 통계분석을 위해 철학 및 논리학 군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전 수강과목에 따른 비판적사고 성향의 자신감 영역에서 철학 및 논리학, 비판적 사고, 이상의 과목 수강 경험 없음 순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철학과목과 비판적사고 과목을 수강한 경우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다고 보고한 양승애와 정덕유(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비판적사고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발 시 비판적사고 및 철학, 논리학 관련 과목의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인 강의방법과 문제중심 학습방법에 따른 비판적사고 성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문제중심 학습방법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의 경우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가 높다고 한 연구 결과(Ozturk, Muslu, & Dicle, 2008)와 같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비판적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과목 및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경우 비판적사고 성향 정도가 높고,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경우 비판적사고 성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존중감 정도가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 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순 상관관계를 보고한 오혜경(2003)의 연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한 김경혜와 김경덕(2007)의 연구,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의 순 상관관계를 보고한 Suliman과 Halabi(2007)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자기효능감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인 비판적사고 성향은 지식 정보화 시대의 대학교육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문제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이 증진되었을 때 유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가정보다는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과학적인 원칙과 방법에 기초를 두며 인간 잠재성을 최대화하고 인간 본성에 의해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답하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Alfaro-LeFevre, 1999)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비판적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교육이 절실하다. 대상자의 비판적사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으로 비판적사고 성향

의 44.6%를 설명하였다. 비판적사고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전문직업인을 배양해야 하는 대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윤소정, 신수진, 이은영, 2007),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함께 증진되었을 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므로 대학교육 및 간호교육에서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판적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대상은 D시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86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PC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982, p=.008$), 자기효능감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8.672, p=.000$). 비판적 사고 성향 총합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F=12.666, p=.000$), 학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F=4.915, p=.008$), 학년은 학사학위 과정($F=3.917, p=.00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경우 비판적사고 성향 정도가 높고($r=.513, p=.000$),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경우 비판적사고 성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r=.630, p=.000$),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 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570, p=.000$).

셋째, 대상자의 비판적사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225, p=.000$), 자기효능감($\beta=.484, p=.000$)으로 비판적사고 성향의 44.6%를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이 기반이 되는 개방적 학습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별하는 능력은 대학 졸업 후 사회인으로 잘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대학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 성향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임의 표출법에 의해 선정하여 특정 그룹에 표본 수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 및 전공에 따른 비판적사고 성향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관련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승희, 김대현 (2006).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기능과 사고 성향의 차이 연구. *청소년학연구*, 13(5-1), 25-48.
- 권인수, 이가연, 김경덕, 김영희, 박경민, 박현숙, 손수경, 이우숙, 장금성, 정복례 (2006).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6(6), 950-958.
- 김경혜, 김경덕 (200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2), 229-236.
- 김연수 (2003). *직업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김진이 (2007). *임상간호사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직무만족도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노형진, 정한열 (2008). *SPSS에 의한 통계분석입문*. 서울: 한울출판사.
- 신경림, 강문정, 고자경, 공병혜, 김순이, 박인숙, 서부덕, 이은숙, 이정인, 장희정, 최귀운 등 (2007). *비판적사고와 간호과정*. 서울: 현문사.
- 신경림, 하주영, 김건희 (200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비판적사고 기술에 관한 종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44(3), 52-62.
- 양승애, 정덕유 (2004). 간호대학 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6(1), 156-165.
- 오혜경 (2003). 여대생의 신체상,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2), 278-286.
- 윤소정, 신수진, 이은영 (2007). 대학생들의 비판적사고 성향이 직업적 성격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19(2), 206-218.
-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689-607.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8). *간호 의료연구와 통계분석*. 서울: 수문사.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4.
- 조학순 (200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 32(2), 57-72.
- 최혜숙 (2006). *여성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모형 구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 황지원 (1998). *간호사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간호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Alfaro-LeFevre, R. (1999).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A practical approach*. Philadelphia: W. B. Saunder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Cook, C. I. (1976). Self-concept of the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 *Can Nurse*, 72(10), 37-38.
- Facione, P. A., & Facione, N. C. (1994).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skill test manual (3rd ed)*. California: California Academic Press.
- Martin, C. (2002). The theory of critical thinking of nursing. *Nurs Educ Perspect*, 23(5), 243-247.
- Ozturk, C., Muslu, G. K., & Dicle, A. (2008). A comparison of problem-based and traditional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Nurse Educ Today*, 28, 627-63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Contra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51, 663-667.
- Shin, K. R., Lee, J. H., Ha, J. Y., & Kim, K. H. (200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Adv Nurs*, 56(2), 182-189.
- Stewart, S., & Dempsey, L. F.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J Nurs Educ*, 44(2), 81-84.
- Suliman, W. A., & Halabi, J. (2007).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anxiety of nursing students. *Nurse Educ Today*, 27, 162-168.
- Walsh, C. M., & Hardy, R. C. (1999). Dispositional differences in critical thinking related to gender and academic major. *J Nurs Educ*, 38(4), 149-155.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College Students

Lee, Jung In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college students. **Method:** A descriptive survey method was us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August, 2008, from 486 college students. The survey sheet was composed of questions on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esult:** The average score of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2.99, 2.80, and 3.99 respectivel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 estee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ween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between self esteem and self efficacy. Self esteem and self efficac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nclusion:** In order to help college students adopt to a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university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a curriculum and program for improving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ey words : Self esteem, Self 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Jung In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University

15-3 Boksoo-Dong, Seo-Gu, Daejeon 302-715, Korea

Tel: 82-42-580-6284 Fax: 82-42-580-6289 E-mail: jilee@hu.ac.kr